

항일·계몽의 역사 품은 문화공간, 시민과 만나다

옛 광산동 100번지에 문 연 흥학관갤러리카페

1층 카페·2층 전시장…지역민·청년작가에 무상 대여
근대 광주정신의 맥락, 일상 속 소통 공간으로 확장



근대 광주정신이 움트고 퍼져나갔던 흥학관 옛 터에, 그 정신을 잊는 문화공간이 문을 열었다. 지난 15일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35번길 8(옛 광산동 100번지)에 '흥학관갤러리카페'가 정식 개관했다.

흥학관은 1919년 논의를 거쳐 1921년 낙성식을 치른 근대 건축물로, 항일운동과 사회계몽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광주정년회와 광주노동공제회, 광주노동야학, 광주부인회, 신간회 광주지부, 근우회 광주지회 등 1920-30년대 광주의 주요 사회단체 상당수가 이곳을 거점으로 활동했다. 특히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역시 흥학관에서 계획·논의된 뒤, 광주에서 시작돼 전국 학생 사회로 확산됐다.

흥학관갤러리카페의 출발은 이 공간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현재로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다.

2011년 해당 건물을 매입한 이형철(사진) 흥학관갤러리카페 대표는 2021년 전일빌딩에서 열린 흥학관 건립 100주년 기

념행사에 참석하며 이곳이 옛 흥학관 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그 정신을 현재로 잊는 공간 구상을 본격화했다.

이 대표는 "이곳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광주의 시간이 겹쳐 쌓인 역사 공간이라는 점이 늘 마음에 남아 있었다"며 "과연 어떤 모습일 때 이 터의 의미가 가장 잘 살아날 수 있을지 계속 질문해왔다"고 밝혔다.

공간 구성 역시 흥학관의 본래 기능과 맥을 함께한다. 강연과 토론, 공연과 교육이 함께 이뤄졌던 흥학관의 성격을 오늘의 방식으로 풀어냈다. 이에 따라 1층은 차와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카페 공간으로, 2층은 전시와 강연·공연·토론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구성했다.

개관과 함께 마련된 첫 전시는 내년 1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오픈 기념전 '광주정신을 만나다. 흥학관'이다. 이번 전시는 흥학관 연구를 오래 이어온 양성현 작가가 기획했으며, 그가 괴낸 '흥학관' 책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 전시 형식으로 구성됐다.

양성현 작가는 "흥학관은 근대 광주정신이 피어나고 시민 사회의 숨결이 가장 뜨겁게 이어졌던 상징적 공간"이라며 "이곳에서는 항일운동은 물론 청년·노동·여성 교육과 계몽 활동이 끊임없이 이뤄졌고, 그 흐름은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정신은 특정 사건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흥학관을 중심으로 오랜 시간 축적된 의향과 현신, 연대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흥학관갤러리카페는 향후 시민과 청년 작가를 중심으로 한 전시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문화재단 등 공공기관과 협력해 공모방식의 전시를 진행하고 지역 동아리와 대학생, 청년 작



흥학관 옛 터인 광산동 100번지에 문 연 '흥학관갤러리카페' 전경.

가들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장을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오늘을 살아가는 광주 시민들이 이 공간에서 시대의 이야기를 나누고, 의향 광주의 역사와 정신을 다시 떠올려보기 기회를 마련한다"며 "흥학관갤러리카페가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뜻깊은 만남의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쓰다 만 시 낭독회’
이수경 작가와의 대화

오늘 광주시립미술관 로비

광주시립미술관이 현재 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장미 토끼 소금_살아있는 제의' 전시와 연계해 '미술가 이수경과의 대화: 쓰다 만 시 낭독회'를 19일 오후 3시 본관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시 초대작가인 이수경(시진)

이 직접 쓴 시를 낭독하고, 전시 작품과 예술세계

를 주제로 관객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자리다.

작품에 담긴 감각과 서사를 작가의 목소리로 듣고, 작업의 맥락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대답은 '장미 토끼 소금_살아있는 제의' 전시 기획자인 흥윤리 학예연구사가 맡아 진행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구글 품과 전화로 가능하다.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1·2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장미 토끼 소금_살아있는 제의'는 예고 없이 다가온 재난과 죽음을 마주한 이후, 단절된 삶이 다시 이어지기 위한 예술의 가능성

을 제의적 예술이라는 화두로 탐색하는 전시로 내년 1월 25일까지 이어진다.

/최명진 기자

“유부비지 무구 종래유타길(초육), 비지자내 정길(육이), 비지비인(육삼)”



〈제40강〉8. 수지비(水地比)中

비괘(比卦) 초육의 효사는 '유부비지 무구, 유부영부 종래유타길' (有孚比之 无咎, 有孚盈缶 終來有它 吉) 즉, 믿음을 가지고 친화하면 허물이 없고, 믿음을 장군에 가득 채우듯, 친심으로 교제하면 마침내 다른 좋은 일이 있어 길하다'는 의미이다.

비괘에서 초육은 교제, 친화의 처음에 해당해 사귐을 시작하려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초육이 먼저 마음을 열고 솔선해서 교제를 구해야 한다. 더욱이 초육은 비괘의 주효인 구오와 응효(應爻)도 비효(比爻)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초육은 아주 짚고 위치도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친심을 가지고 교제를 구하면 허물이 없고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마치 장군 같은 큰 그릇에 가득 채우듯이 친심으로 교제를 하면 (有孚盈缶), 중국에는 뜻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有它) 길사를 얻는다 (終來吉).

상전에서는 '성실함으로 낮은 위치에서 감동시킴이 뜻밖의 길함을 가져온다'고 해 '비지초육 유타길야' (比之初六有他吉也)라고 말한다.

이때 초육은 남들과 친밀하고 성실하다. 감동을 주며 신의를 얻는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일이 잘된다. 남들과 사교적인 때이므로 학생들은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한다. 정성으로 남들을 감동시키는 때이다.

점사에서 서죽을 들어 초효(각주=하리이수(河洛理數), 세운(世運)에서 초육을 만나면 벼슬한 자는 정원 밖에서 천이(遷移)가 있다(則有額外之遷/즉유액이지천/額이마, 일정한 액수 액). 선비는 등천하는 영에 있다(則有登薦之策/즉유등천지역). 선인은 지기를 만나 백모에 마음껏 이뤄지지 않음이 있다(則有知已之遇而百謨無不稱心矣/즉유지기지우이백모무불정상법)를 얻으면 교제를 처음 시작하는 시기로서 성실과 친심으로 교제하면 뜻밖에 예상외의 좋은 일이 생기는 때이다. 3, 4명의 경쟁자들이 있어 불리한 조건으로 그리한 위치에 있으나 성심을 다해 육심내지 않고 교제하면 생각지 못한 길(有它吉)이 있다. 교제의 처음 시기이니 이·삼·사효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어 더 고생해야 하고 노력은 배가(倍加)하지 않으면 안되는 때이다. 그러나 초육은 소박한 한마음을 유지하면서 구오를 묵묵히 따르면 구오로부터 마침내 신의와 배려를 얻을 수 있어 길하다.

취직, 지명, 혼담 등에서 다른 경쟁자들에게 비해 불리한 위치나 조건을 가지고 고전(苦戰)하지만 초효는 대단한 노력이므로 경쟁자들에게 결코 지지 않고 뜻밖의 길을

얻어 목적한 바를 성취한다. 거래, 사업 등에서도 오랫동안 끈기 있게 노력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진심으로 성심을 다해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태는 변괘가 둔괘(屯卦)로 양수 안의 태아를 품고 있는 상이니 가능하다. 기다리는 것은 아주 늦게 생각지 못한 소식을 얻을 수 있으나 기출인과 분실물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는다. 병은 가벼워도 점차로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관직에 출사한 모인의 아들의 운세 여하'를 입서해 초육을 얻은 '실점예'에서 점고(占考)하기를 "비는 친비에 의해 입신을 계획하는 것으로 입신하고자 한다면 친화(親和)에 힘쓰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상대가 자신에게 불경(不敬)한 행동을 하거나 무시하더라도 언제라도 성의를 가지고 대하면서 떡으로써 깊는다면 상대도 마침내 감동해 성심을 다하게 된다. 이를 '유부비지 무구' (有孚比之 无咎)라 하고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성심을 다해 친화해 나아가면 당신의 덕성과 지성에 감동해 뜻밖에 입신할 수 있는 좋은 행운을 만나 구오인 인군(仁君)과 응하는 육이나 육사의 위치로 나아가 입신성명(立身成名) 할 수가 있다"고 했다.

비괘 육이의 효사는 '비지자내, 정길' (比之自內 貞吉)이다. 즉 '내부로부터 친함이 있으니 바르고 길하다'는 의미이다.

비지감(比之坎 二動)의 이효는 음위에 음효로 유순중정의 중용의 덕성을 갖춘 효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구오인 인군과 음양 상응해 육이의 타인과 친함에 있어 내면적 덕성을 갖추고 있다면 구오는 육이를 찾아온다.

구오는 강건중정(剛健中正)의 효이고 육이는 유순중정(柔順中正)의 효로서 서로 친밀함이 있으니 이를 반드시 굳게 지키고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구오만 바라보고 친하게 되면 길을 득한다. 상전에서도 이러하면 내부에서 믿고 따르니 스스로 헤매지 않고 잃은 바도 없다고 해서 '비지자내 부자실야' (比之自內 不自失也)라고 말한다.

육이의 때에는 내부에서 친밀하고 직장에서는 내근(內勤)을 선호한다. 내부적인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고 원하는 일 역시 쉽게 이뤄진다.

점사에서 서죽을 들어 육이(각주=하리이수(河洛理數), 세운(世運)에서 육이를 만나면 벼슬한 자는 내직에 제수되고(則見內除/즉견내제), 선비는 성명하나 지방을 벗어나지 못한다(則成名不出方州之中/즉성명불출방주지중). 서속은 귀한 이에 의지함을 득해 영보를 협의한다(則得貴倚附而營謀協意/즉득귀의부 이영모협의). 어명은 혼부를 배필로 맞이한다(則得賢夫之配/즉득현부지배)를 얻으면, 내부에서 친밀해 직장에서는 외근보다 내근직을 선호하게 된다. 자신이 남의 일을 하려 할 때 그 주인은 구오로서 대단히 인자한 좋은 사람�이어서 맡이 통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적이고 마지막 부인처럼 대우해 준다.

그러나 구오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 육이는 변애(變愛)에 빠져 괴로울 수도 있다. 그렇다고 육이는 구오의 사랑을 독차지해서는 안된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성사 여부나 장래를 판단하고자 할 때 육이를 얻으면 상당히 발전성이 있는 일이고 시세(時勢)에도 맞다. 다른 곳의 꽃이 예쁘더라도 마음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고 현재 하는 일에 전념하면 틀림없이 성공한다. 만일 마음을 바꾸거나 전환을 하면 크게 실패한다. 전업, 전거 등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사업 등도 현재 하는 일, 하는 곳을 굳게 지키는 것이 좋다.

훈인은 남자에게 여자가 많다. 즉 구오를 따르는 사람은 본인인 육이 뿐만 아니라 초육, 육삼, 육사도 응효로 구오와 상응하고 있어 남자에게 따로 마음을 둔 여인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로 인해 육이는 변애(變愛)에 빠져 괴로워한다. 임태는 변괘가 감위수로 쌍생아로서 출혈이 많아 난산이 우려된다. 기다리는 사람과 가출인은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고 찾기 어려우며 분실물 또한 발견하기 어렵다. 병은 출혈, 설사가 멈추지 않고 오한이나 심한 통증을 동반한 위기의 빈사(瀕死) 상태로 변해가 육충파로 변했으니 생명이 위독하다고 할 수 있다.

'모인의 영전(榮轉) 여하'를 물어 비괘 육이를 얻은 '실점예'에서 점고하길, "비는 지상에 물이 있어 땅과 밀착해 상친(相親)하는 상이다. 육이는 유순중정으로 강건중정의 구오인 군주와 음양상응해 정선(貞善)하고 내부적으로 모든 사람들과 친밀해 서로 이끌어 주는 사람이 있으므로 영전을 한다"고 해 역시 예상보다 크게 영전했다.

비래 육삼의 효사는 '비지비인'(比之匪人)이다. 즉 '친하게 교제해보려는데 교제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는 의미이다.

삼효는 양위에 음효로 부중부정하다. 이웃하고 있는 모든 헌과 배척하고 있다. 더욱이 육이와 상효와 응(應) 하려 하는 데 응효인 상육과 음양이 맞지 않아 상육에 마음이 구속당하고, 괴주(卦主)인 구오와 친하면서 따라야 하는 때에 있으므로 위치가 맞지 않아 구오와 신속히 친할 수도 없다.

육삼은 예컨대 나라에 있어서 복종하지 않는 신하고 일가(一家)로 보면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를 비인(匪人)이라 했다. 그래서 비지비인(比之匪人)은 인비인(人非人)으로 사람이 아닌 사람과 교제하면 슬픈 일이나 안된다. 사람이 아닌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는 의미이다. 상전에서도 '믿지 못할 사람을 믿으니 어찌 상함이 없으리오'라 해 '비지비인 불역상호'(比之匪人 不亦傷乎)라고 말한다.

육삼의 때에는 친밀하나 친밀함이 깨져서 상한다. 믿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는다. 슬

픈 일이 생기고 이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

점사에서 서죽을 들어 육삼(각주=세운(世運)에서 육삼을 만나면 벼슬한 자는 동료와 불복하는 허물을 막고(則防同僚不睦之怨/즉방동료불목지간/怨) 허를 건) 선비는 내치고 떨어지는 근심을 막아라(則防黜落之虞/즉방黜기우/黜물리칠 출). 서속은 손해만 되는 친구를 시기 의심하며 혈기가 손상된다(則損損猜疑 血氣損傷/즉손우시의 혈기손상). 만약 여자가 시집가면 상대가 필히 양인이 아니니 피기하고 상신하는 상이다(若女子所嫁必非良人 破家獨身之象/여자소가필비양인 피기상신지상). 그렇지 않으면 부부간 생애(生業)에 재물을 파여며 믿지 못하고 막아야 되도록(則勿用財刑孝 多般撓括 未免徒流/불연 죽유 생술파지형효다반요끌미면도류/撓목일괄)을 얻으면, 평소 친밀한 사람과 친밀함이 깨지고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며 뒤통수를 맞는 때이다. 매사가 정상의 상태에 있지 않다. 즉 때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거나, 자기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평이 좋지 않는 웃사람으로부터 나쁜 일의 시김을 당하고 있는 때이다. 따라서 모든 일의 주진이 불가한 상황이다.

즉, 사업, 바람, 거래, 전업, 확장 등은 불가하고 성사돼도 결과가 좋지 않으므로 그만 두는 것이 좋다. 훈인은 가장 안 좋은 시기로서 좋지 않은 인연으로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 임태는 가능하나 변괘가 건괘(蹇卦)로 난산이고, 훈인은 '비지비인'이라 했으나 바르지 못한 품행으로 인한 회임(懷妊)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기다리는 사람은 기대를 배반당하고 분실물을 찾기 어려우며 가출인은 밖으로부터 유혹이 있어서 가출했다(陰變陽). 병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치유가 어렵다.

정부 중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자가 건강도 안 좋고 능력의 한계를 느끼거나 본인 사표 여부를 문점하자 육번서(六變筮)로 비래 삼효를 듣고 '실점예'에서 점고하기를, '삼효' 훈인에 비지비인(比之匪人), 즉 구오 중정(中正)의 인군(人君)과 친해 보려고 하나 친할 사람입니다. 육삼은 부중부정(不中不正)의 헌로서 구오와는 응효도 아니므로 자격이 없는 비정상인 사람으로 국가가 하는 일에 적임자가 아니라라는 뜻이다. 만일 관직에 그대로 머무른다면 변괘가 수산건(水山蹇)이나 건괘의 상의(象意)처럼 등산 길에 진눈개비가 내려 혼준한 산마루에서 밤이 얹고 미끄러져 다쳐 오기도 못하는 진퇴유곡(進退幽谷)에 빠져 건난(蹇難)에 허덕이게 된다고 말했다. 마침내 문점자는 사직했고 예전의 건강을 회복해 평상으로 돌아왔다.

육번서에서는 본래가 변한 지래를 중시해 판단한다.

【동인선생 강좌개설안내(062-654-4272)】

○개설과목(2): 명리사주학, 역경
(매주토, 일요전)
○기초이론부터 최고수준까지
직업전문가양성